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7권 1호), 2014년 4월 : 103~138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최민정* · 권정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 집단을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교하고, 사회적 배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과 자산 등 전반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노인은 총소득과 근로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이 높아 공적연금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농촌노인은 정부보조금과 같은 잔여적인 소득급여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농촌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업 및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이었다. 이러한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반대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 셋째,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농촌노인의 경우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였으며, 도시노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농촌노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노인 보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노후생활수준에서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농촌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소득지원망의 확보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주제어 : 농촌노인,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지니 공변량 분해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E-mail: mj-1677@hanmail.net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kjean@incheon.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노령인구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출산력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제2차 인구변천을 맞이하게 되었고(통계청, 2012),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서비스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대규모 인구의 도시유출과 인구의 노령화, 지역사회의 공동화 등으로 해체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로 노인인구가 남게 되었다(김영주, 2008:32). 그 결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000년에 14.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도시지역 고령화 비율 5.5%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함께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노년기 삶의 다양성과 불평등 문제이다(Calsanti, 1996). 특히 농촌 주민들은 소득구조의 불안정, 교육 및 의료시설의 불리,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활동의 부재 등으로 도시와 비교하여 복지 및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1],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노년기 삶에 관한 연구들은 미래의 노년층은 현재의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다양한 영역(경제적, 노동)에서의 변천과정을 경험하게 되며(박경숙, 2001:141), 비 노인에 비해 노인의 소득불평등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경아, 2008:98; 이원진, 2012:171). 더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위험에 처할 위험은 매우 높으며(배진희, 2004),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제외된 독신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경제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가구소득은 6배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1년 기준 농가소득은 3,341만

1) 도시와 농촌 거주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유병률이 높으며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원, 1995; 박경숙,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반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농촌노인이 사회 전반 영역에 있어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노인에 비하여 농촌노인들이 경제적·의료적·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농림부, 2002; 배진희, 2004:198).

원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5,140만원 추정)의 65% 수준으로 이는 2008년 65.2%보다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특히 연령별 농가소득은 40~49세 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2010년 104.4%, 2011년 89.5%, 50~59세 농가는 2010년 97.6%, 2011년 86.7%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0세 이상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2010년 43.4%, 2011년 40.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2016년에는 50.4%, 2021년에 43.2%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올해로 베이비부머의 맏이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급격히 늘어날 노년층의 양적 팽창 문제와 더불어 노인 문제의 다양성과 복합성은 이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Scharf et al., 2001). 더욱이 농어촌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어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생활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공공서비스의 부족은 물론 인구의 과소화로 인해 불평등 완화 기제인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도시 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서도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김동진 외, 2013).

이처럼 농촌지역 노인들이 노년기에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될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미진하다. 다만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박대식·마상진, 2007)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동제약 측면에서의 배제를 다룬 연구(노시학·이재천, 2013)와 빈곤율과 빈곤감을 중심으로 농촌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영주, 2008)가 있을 뿐이다. 향후 농촌인구의 높은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베이비부머들 중 상당수가 농촌으로 이주하길 희망함에 따라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격차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취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실태를 도시노인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농촌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측정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조의 특성과 개념을 사용하는 학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이며,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에서 사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Pierson, 2001:7). 이와 관련하여 Leisure와 Leibfried(1999)는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제도의 참여 기회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원인을 빈곤계층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 의해 빈곤이 발생된다고 보고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 상황은 단일 차원의 문제, 예컨대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Miliband는 사회적 배제가 상대적이고 관계적이며, 다차원적임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강조하였다(Miliband,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종합하여 사회적 배제를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경제, 근로, 주거, 교육, 건강과 사회활동 영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고립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Reimer(2004)와 Shucksmith(2001)에 의해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관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 이후, 사회적 배제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취약집단연구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Levitas et al., 2007). 유럽연합차원의 국가행동계획(NAP, National Actional Plan)은 4대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2] 영국의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이하 SEU)에서는 특히 노인을 사회적 배제의 관심 대상으로 설정하

2) 유럽연합의 국가행동계획의 4대 공동목표의 내용은 첫째, 모든 사람에 대한 고용참여기회 및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촉진 둘째, 배제 위험 방지 셋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 넷째, 모든 관련 기관 동원(강신욱 외, 2005)으로 설정하였다.

였다(SEU, 2001, 2006[3]).

한편,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Buchardt 등이 사회적 배제 영역을 소비행위(저소득), 저축행위, 생산행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사회적 고립)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한 것[4]과 포괄적 개념의 사회적 배제 개념을 사용한 Bradshaw 등이 사회적 배제를 적절한 수입 혹은 자원,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 분류를 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Bradshaw et al., 2000).

국내 연구물 중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예는 아직 없지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배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 예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분석한 백혜성(2008)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통합변수를 사용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배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혜경(2009) 또한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4가지 차원 즉, 사회적 교류, 생산 활동, 정치적 관여, 소비활동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여성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분석한 송미영(2008)은 경제, 근로, 주거, 건강, 교육, 사회활동 영역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배지연 등(2006)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타 영역배제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강현정과 김윤정(2010)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 근로, 주거, 건강, 교육, 사회활동의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였고, 박현주와 정순둘(2012)은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전, 정서적 배제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와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과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핵심 영역에 주목하여, 사회적 배제 영역을 다음의 6가지 즉, 경제적 배제, 주거 배제, 고용 배제, 건강 배제, 사회참여 배제, 가족관계 배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3) SEU(2006)는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로 7개 영역을 구성하고 지표에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서비스 접근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4) 이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5년간 영국 가구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저소득(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1/4에 해당하여 소비행위(저소득) 영역이 가장 일반적인 배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행위영역을 경험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uchardt et al., 1999).

〈표 1〉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영역	측정지표
배지연 외 (2006)	60세 이상 빈곤 및 중산층 지역 일반재가노인	경제	• 경제활동참여 유무 • 주관적 빈곤감 • 재정상태(은행계좌, 저축, 연금 등)
		정치	• 정당 활동 참여 • 반상회 및 주민활동 참여 • 여가활동참여 • 자원봉사참여 • 교회 및 종교단체 • 선거 투표 유무
		사회	• 사회적 관계: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 고민상담자 유무; 정보제공자 유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 문화 활동: 영화관람; 박물관, 미술관 견학; 관광; 외식
		기타	• 사회적 서비스: 교통; 의료; 금융; 공공; 구매시설과의 접근성 • 동네배제: 동네에 대한 소속감; 혼자 산다는 느낌; 동네사람들 신뢰; 저녁 이후 혼자 산책하는 것의 두려움; 지역 사람들과의 친근함 등 • 노인차별인식: 문화시설에서의 소외감; 여가프로그램 부족; 노인 차별 및 소외에 대한 인식 등
김안나 외 (2008)	노인실태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노인대상자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노동	•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주거	• 화장실 사용형태(단독수세식 사용 여부)
		건강	• 주관적 건강 상태
		사회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 노인사회단체 참여여부
		관계	•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이혜경 (2009)	60세 이상 종합복지관 이용자	배제 척도	• 사회적 교류 • 생산 활동 • 정치적 관여 • 소비활동
강현정· 김윤정 (2011)	고령화패널조사 65세 이상 노인	경제	• 개인총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근로	• 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여부
		주거	• 거주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에서 자가 여부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	• 학교에 다닌 경험 유무
		사회	• 친목, 여가활동, 동창모임, 자원봉사활동, 정당 단체 활동 중 참여 여부
박현주· 정순둘 (2012)	영국고령화패널1차조사 50세 이상 남녀	사회	• 가족 및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
		문화	• 영화관, 미술관 및 박물관, 극장 및 콘서트 등에 가는 빈도
		의료	• 병원, 치과, GP, 물리치료시설 등에의 접근 용이성
		재정	• 실효은행계좌 소지여부, 개인연금 혹은 보험가입여부
		정서	• 심리적 고독감, 외로움

2.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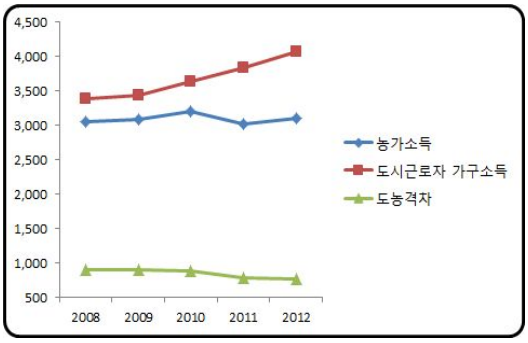
농촌노인은 농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배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 성향을 지닌 집단이다. 농촌노인의 빈곤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비록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노인들이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는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 등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농촌노인에게서 다차원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는 산업화와 궤적을 같이 한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촌이 경제발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 격차 심화, 젊은층의 이농,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악순환 구조와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 농촌의 경향은 구조화되었다.

농촌노인과 도시노인 간 소득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성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10년 11.3%로 치솟았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동결되었으나 원가 부담은 늘어 쌀 소매가격(상품 20kg 기준)이 2000년 4만 4,815원에서 2012년에는 4만 4,197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은 5,300원(20kg 기준)에서 1만 2,850원으로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도 감소하여 2009년 농업·농촌부문 예산 중 21.8%에서 2012년에 15.7%로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으나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2인 이상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103만원으로 2인 이상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 5,391만원의 57.6%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 간 큰 소득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2). 김안나 등(2008)의 연구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빈곤과 관련된 연구들(석재은, 2004; 여유진, 2005; 최옥금, 2007)에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빈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간

〈표 2〉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소득	3,052	3,081	3,212	3,014	3,103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391	3,432	3,632	3,842	4,077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2014).



주: 도농격차=(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2014).

〈그림 1-1〉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추이

소득격차의 추이는 〈표 2〉 및 〈그림 1-1〉과 같다.

또한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으며 동거형태에서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5](모선희, 1999), 자녀의 부양기능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낮으며(이형실, 1999; 박승희, 2000), 소득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원, 1995; 박경숙b, 2001; 배진희, 2004:198).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그들의 자녀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일이나 일당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건강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김영주, 2008:34), 이러한 건강문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한편, 젊은 층 인구의 이농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주의의 쇠퇴로 인해 농촌노인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담당해왔던 가족들이 더 이상 사적 지원체계로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9.2%에서 2010년 13.3%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강혜규 외, 2013). 정경희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10~15% 미만을 보이고 부부가구 비율이 20%대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 부부가구 비율이 30%대를 보이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에 가구형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농촌사회의 해체와 부양의식의 약화, 자녀와의 별거, 근대화된 부문에 편입

5) 지역별 노인 자녀와의 거주거리를 살펴본 연구(정경희 외, 2003)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걸어서 30분 미만이 26.6%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1.2%이며, 차를 타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도시지역은 10.4%, 농어촌지역은 24.4%로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에 도시와 지역노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어촌지역은 자녀 동거가구의 노인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도 멀어져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이 도시지역보다 더 어렵다.

〈표 3〉 농촌노인의 독거가구 수 변화

(단위: 호, %)

구분	가구			노인독거 가구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도시	11,102,416	12,744,940	14,031,069	263,233(2.4)	415,899(3.3)	625,639(4.5)
농촌	3,050,160	3,142,188	3,308,353	279,457(9.2)	366,809(11.7)	440,726(13.3)

자료: 강혜규 외(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될 수 있는 기술 습득의 결여가 사회서비스의 도시 편중과 맞물려 농촌 노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김종숙, 1999). 농촌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보다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으며(이혜원, 1995). 또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높고(최현수·류연규, 2003), 도시노인에 비해 생활비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박광희·한혜경, 2002; 정경희 외, 2012), 유병률이 높고, 질병치료 시 교통 불편이나 교육비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노시학·이재천, 2013).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농촌노인들이 경제적·의료적·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도시노인에 비하여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2002). Delon 등(1989)은 그간 농촌지역 거주자의 빈곤과 인적자원의 부족,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거주지역별 의료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이 높은 반면, 2주간의 외래이용률에서는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지원체계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표 4〉 지역별 의료이용여부

(단위: 명,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6] (병의원)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치과)	2주간 외래이용률[7]
동	456(28.0)	1,579(36.6)	4,999(29.3)
읍면	1,165(21.9)	384(31.6)	1,799(38.3)

자료: 2012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2013).

6) 연간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병의원):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 제외) 미치료자 중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7) 2주간 외래이용률: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

는데, 전국의 보건의료기관 8만1천66개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25.5%, 20.0%가 밀집되어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면 60% 정도가 농어촌에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3). 노시학·이재헌(2013)의 연구에서도 농촌노인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복지혜택이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이동 및 접근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간적 고립 및 사회적 배제과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노인(17.1%)에 비해 농촌노인(49.1%)이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직종의 경우 도시노인은 단순노무직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어축산업 종사자 21.6%,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17.5% 순으로 많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축산업이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11.6%로 많았다(정경희 외, 1998). 농촌노인의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경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무학노인의 비율은 30%대이며, 대학 이상 학력 노인의 비율은 약 5~10%를 차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무학노인의 비율이 50% 이상, 대학 이상 학력의 비율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노인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며,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농어촌 거주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농촌노인은 현대 사회의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더하여 농촌이라는 지역적 악조건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소외된 계층이며, 많은 농촌노인들이 사적가족 지원체계의 부족, 경제적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노인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부족이라는 경제적 빈곤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노인의 문제는 소득부족, 건강악화, 사회적 참여기회 부족, 역할상실 등 상호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농촌노인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더불어 단순히 소득지원을 넘어서 의료, 주거, 돌봄,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제7차년도(2012년)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정보와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소득과 소비, 교육,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주거상태 등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 되었으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7차년도 횡단면 표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과 같은 가구단위 변수와 교육, 사회적 관계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단위 변수를 활용해야 하므로 7차년도의 가구자료에 개인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김영주(2008) 연구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서울, 광역시, 시를 도시지역으로 군과 도농복합군을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농촌지역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기준 연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선정하였고, 농촌지역 노인과 도시노인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807개이다.

2. 사회적 배제의 측정

1) 측정 지표의 설정

사회적 배제의 차원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경제, 주거, 고용, 건강, 교육, 사회참여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고,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사회적 배제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각 차원 내의 하위지표를 구성하였다. 우선, 경제적 배제는 소득과 자산으로 구성되었다. 소득규모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연간 소득을 5분위수로 나누어 5개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자산규모는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소득과 마찬가지로 5분위수로 나누어 5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주거배제는 주택 시설기준 미달여부와 주거환경만족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셋째, 고용배제는 고용형태와 직무환경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고용형태는 취업과 미취업 여부로 설정하였고, 직무환경은 지난 1년간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와 없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넷째, 건강배제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를 토대로 건강영역의 배제지표를 구성하였다. 다섯째, 사회참여 배제는 인터넷 사용 여부와 자원봉사·기부여부 그리고

〈표 5〉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변수구성 및 측정 방법

영역	지표	측정 방법	척도	비 고
경제	소득 순자산	소득분포5분류 자산분포5분류	5 5	- 근로, 부동산, 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균등화지수 적용) - 총자산-부채액
주거	주택기준 미달 주거환경만족도	해당/비해당 만족도 평가	2 5	- 주거시설에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미달
고용	고용형태 고용환경	근로활동 소외 해당/비해당	2 2	- 임시, 일용, 자활, 무급가족종사, 실직자 -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 유
건강	병원이용 건강상태	있다/없다 좋음/안 좋음	2 2	-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유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좋지 않음 이상
사회참여	인터넷 사용 자원봉사 기부여부 사회참여 만족도	해당/비해당 해당/비해당 만족도 평가	2 2 5	- 인터넷 사용하지 않음 - 자원봉사, 기부하지 않음
가족관계	가족생활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5 5 5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배제는 가족생활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표 5〉).

2) 측정 방법

이상에서 구성한 6가지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Zadeh 교수가 제안한 퍼지 집합 이론(Fuzzy set theory)을 활용한다[8]. 구체적으로 퍼지 집합 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퍼지 집합 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배제 점수는 해당 점수들을 표준화하고[9], 가

8) 퍼지 집합 이론은 Lofti Zadeh에 의해 1965년 처음 제안되었으며, 고전적인 집합이론(crisp-set)의 확장 형태로 수학과 심리학 등에서 사용되어 오다 점차 국내에서도 사회적 배제 수준의 수량적 측정을 위하여 다차원적 결핍과 박탈 측정을 위한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서병수, 2006; 김교성·노혜진, 2008; 박정희, 2010; 이재은, 2012). 고전적인 집합이론은 오로지 1(present)과 0(absent)의 두 가지 소속점수(membership score)만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퍼지집합(fuzzy set)이론은 0과 1이라는 '소속(membership)'과 'nonmembership)'의 이분법을 넘어 0.2, 0.5, 0.75 등 0과 1사이의 다양한 소속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Ragi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의 수량적 측정과 다차원적 빈곤의 측정을 위해 수학적 개념인 퍼지 집합 이론을 빈곤 측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2년 유럽통계국(Eurostat)에서 공식 채택되어 최근까지 빈곤과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Betti and Verma, 1999; Qizilbash, 2006; 최영준, 2009).

9) 즉, 각 지표가 모두 동일한 척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표준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

중치를 부여한 뒤 각 차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1) k지표 안에서 i라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는 아래의 등식에서 나타난다.

$$S_{k,_i} = V_{k,}^{a_i} \cdots\cdots ①$$

(2) 각 지표의 척도를 표준화하는 공식

$$S_i d_k = \frac{V-m}{M-1} \cdots\cdots ②$$

V : 변수값, M : 최대값, m : 최소값

각 배제 영역의 변수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하여 0과 1사이의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2)번 공식과 같이 표준화시키고 하나의 범주 변수 하에 복수의 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화된 각 변수들의 값을 합산한 후 변수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있다/없다의 경우와 같이 이항변수인 경우 결핍 시에는 1의 값을 갖게 되고, 비결핍 시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이항변수가 아닌 등급이 있는 변수의 경우, $m=1$ 이 가장 결핍 또는 불만족에 해당되고 $m=M$인 경우에는 비결핍 또는 만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5점 척도인 경우 가장 불만족에서 가장 만족 순으로 배열되면 퍼지점수는 1 〉 0.75 〉 0.5 〉 0.25 〉 0의 값을 갖는다.

3) 표준화된 점수에 가중치 부여

지표별 기준에 따라 측정된 점수를 표준화해준 뒤,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지표별로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 차원에 있어 k변수에 대한 가중치 w_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_k = w_k^a \times w_b^k \cdots\cdots ③$$

여기에서 w_k는 가중치를 의미하고, 이러한 가중치는 w_k^a 즉, k변수의 결핍점수$S_{k,_i}$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변수의 평균)와 w_k^b 즉, k변수와 동일한 차원 내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의 합의 역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w_k^a는 하나의 변수에 있어 전체 인구 중 개인 간을 차별화하는 분산의 크기에 결정되는 것으로 변수의 변이계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w_k^a \propto cv_k$$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성 또는 자의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퍼지 집합 이론에서는 퍼지셋 점수로 변환하기 위한 측정(calibration)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표준화하지 않은 변수에 대해 이것이 적용될 경우, 각 변수의 질적인 전환점을 임의로 설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교성 외, 2010).

그리고 w_k^b는 상관관계가 큰 지표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w_k^b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_k^b \propto \left[\frac{1}{1+\sum_{k=1}^{K}\rho_{k,k}\rho_{k,k^1} < \rho_H}\right] \times \left[\frac{1}{\sum_{k=1}^{K}\rho_{k,k}\rho_{k,k'} \geq \rho_H}\right] \quad \cdots\cdots ④$$

여기에서 $\rho_{k,k'}$는 한 차원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이다. 즉, w_k^b는 한 변수가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계수로 갖는 값 1에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계수를 더한 값의 역수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표에 부과하는 최종 가중치는 각 변수의 변이계수와 한 차원에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계수 합의 역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4)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_i = \sum_{k=1}^{K} w_k \cdot S_{k,i} / \sum_{k=1}^{K} w_k \quad \cdots\cdots ⑤$$

이를 통해 각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점수는 0점에서 1점 사이에 무수한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로 구해지며, 이때 총 6개 차원의 점수를 합산한 최대값은 6점이 된다.

5) 개인의 최종 사회적 배제 점수

마지막으로 각 차원의 점수를 6으로 나눈 값이 각 개인의 최종 사회적 배제 점수가 되며,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δ은 차원을 의미한다.

$$S_i = \frac{1}{6}\sum_{\delta=1}^{6} S_{\delta,i} \quad \cdots\cdots ⑥$$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0점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3. 경제적 불평등 측정 및 요인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소득불평등으로 개념화하였고, 지니계수를 통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의 요인을 측정하였다.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각 소득불평등 원인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고, 집단 간 불평등 비율이 높은 요인을 찾아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론하였다(김혜연·홍백의, 2009). 러만과 이차키(Lerman & Yitzhaki, 1994; 여유진 외, 2005)의 공변량 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여유진, 2002).

총소득 지니계수(G)는 총소득(X)와 총소득의 누적분포(F)의 공변량을 총소득의 평균(m)으로 나눈 값의 2배로 정의할 수 있다.

$$G = \frac{2Cov(X, F)}{m} \quad \cdots\cdots ①$$

총 소득의 지니계수(G)는 $X_1, X_2 \ldots X_k$가 각 소득원천별 소득수준을 나타낸다고 하면 $X = \sum_{k=1}^{K} X_k$의 방식으로 분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F_x는 x_k의 누적분포를 의미하고, m_k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원천 k의 지니집중계수 G_k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_k = \frac{2Cov(X_k, F_k)}{m_k} \quad = \quad G_k = \frac{2\sum_{k=1}^{K} Cov(X_k, F)}{m} \quad \cdots\cdots ②$$

여기에서 $Cov(X_k, F)$는 각 소득원천 k와 총소득의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식 분자와 분모에 동일하게 $Cov(X_k, F)$와 m_k를 곱하고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이 분해된 소득원천별 요인들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Lerman and Yitzhaki, 1994; 여유진 외, 2005 재인용).

$$G = \sum_{k=1}^{K}\left[\frac{Cov(x_k, F)}{Cov(x_k, F_k)} \cdot \frac{2Cov(x_k, F_k)}{m_k} \cdot \frac{m_k}{m}\right] = \sum_{k=1}^{K} R_k G_k S_k \quad \cdots\cdots ③$$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 점수로 환원된 경제적 배제 정도만으로는 노인 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들[10] 예컨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등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영역 중 경제적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4.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 = \beta_0 + \beta_1 \text{성별} + \beta_2 \text{연령} + \beta_3 \text{교육수준} + \beta_4 \text{혼인상태} + \beta_5 \text{가구원수} + \beta_6 \text{가구구분} + \beta_7 \text{취업여부} + \varepsilon$$

y=사회적 배제 점수

10) 노년기 불평등을 다룬 여러 연구들(Merton, 1968; Dannefer, 1991; Smeeding, 1998; Holden and Hatcher, 2006; 박경숙, 2001; 이소정 외, 2008; 김태완 외, 2012)에서는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원천을 연금소득, 근로소득, 공공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인구학적 변수와 가구·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6, 7〉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농촌노인 중 40.8%가 남성이고, 도시노인의 경우 45%가 남성이었다. 농촌노인 중 59.2%가 여성이고 도시노인의 55.0%가 여성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서도 농촌노인의 고령자비율이 도시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약 절반가량의 75세 이상 고령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75세 미만의 노인 비율은 도시지역이 높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노인의 교육수준이 농촌노인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비율이 도시노인의 경우 63.7%, 농촌노인은 59.4%로 도시노인의 유배우율이 다소 높았으며, 배우자가 사별한 비율은 농촌노인이 37.7%, 도시노인이 32.1%로

〈표 6〉 농촌 및 도시지역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농촌지역			도시지역			집단 간 차이
구분		전체(명, %)	구분		전체(명, %)	(χ^2, t)
성별	남성	132(40.8)	성별	남성	667(45.0)	1.961
	여성	192(59.2)		여성	815(55.0)	
연령	65~69	83(25.7)	연령	65~69	483(32.6)	10.788**
	70~74	85(26.4)		70~74	424(28.6)	
	75~79	74(22.7)		75~79	290(19.6)	
	80세 이상	82(25.3)		80세 이상	286(19.3)	
교육수준	초등이하	150(76.9)	교육수준	초등이하	816(55.1)	64.547***
	중학교	32(9.9)		중학교	232(15.6)	
	고등학교	30(9.4)		고등학교	246(16.6)	
	전문대/대학	9(3.5)		전문대/대학	155(10.5)	
	대학원 이상	1(0.3)		대학원 이상	34(2.3)	
혼인상태	유배우	193(59.4)	혼인상태	유배우	944(63.7)	7.779
	사별	122(37.7)		사별	477(32.1)	
	이혼	6(1.7)		이혼	46(3.1)	
	별거	1(0.3)		별거	9(0.6)	
	미혼	1(0.2)		미혼	7(0.5)	
출생년도(평균)		1937.08	출생년도(평균)		1938.44	3.291**
사례수		324(100.0)	사례수		1,482(100.0)	

주: *p<0.05 **p<0.01 ***p<0.001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 대상자들의 출생년도를 보면 농촌노인은 평균 1937.1년에 출생하였고, 도시노인은 평균 1938.4년에 출생하여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에 비해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 및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동거여부에서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 모두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농촌노인의 저소득 가구 비율은 65.2%로 과반수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도시지역은 48.6%로 나타나 지역 간에 소득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사적 지원망 역할을 하는 가구원 수의 경우도 농촌노인은 평균 2.12명의 가구원이 있는 반면, 도시노인은 평균 2.42명의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의 사적지원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경제적 불평등 비교

본 절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 있는 소득과 부채, 자산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차원의 경우 총 근로소득과 임시·일용직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표 7〉 농촌 및 도시지역 노인의 가구 및 경제활동 특성

농촌지역			도시지역			집단 간 차이
구분		전체(명, %)	구분		전체(명, %)	(χ^2, t)
동거여부	동거	318(98.2)	동거여부	동거	1463(98.7)	9.932
	비동거	7(1.8)		비동거	19(1.3)	
가구구분	일반가구	113(34.8)	가구구분	일반가구	762(51.4)	29.006***
	저소득가구	211(65.2)		저소득가구	721(48.6)	
고용형태	상용직	1(0.3)	고용형태	상용직	20(1.3)	155.709***
	임시직	10(3.2)		임시직	93(6.3)	
	일용직	10(3.1)		일용직	57(3.8)	
	자활/공공	5(1.6)		자활/공공	15(1.0)	
	고용주	3(1.0)		고용주	9(0.6)	
	자영업	91(27.9)		자영업	141(9.5)	
	무급가족	37(11.3)		무급가족	35(2.3)	
	실업자	0(0.0)		실업자	0(0.0)	
	비경제활동	167(51.6)		비경제활동	1113(75.1)	
가구원 수(평균)		2.12	가구원 수(평균)		2.42	3.927***
사례 수		324(100.0)	사례 수		1,482(100.0)	

주: *p<0.05 **p<0.01 ***p<0.001

〈표 8〉 농촌노인 집단과 도시노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소득	총소득	도시노인	1482	1877.2640	1491.1512	5.035***
		농촌노인	324	1436.2640	1086.9218	
	총 근로소득(월)	도시노인	595	203.2537	211.4591	4.018***
		농촌노인	97	112.8385	160.4038	
	상용직 임금소득	도시노인	247	313.6195	236.4603	0.778
		농촌노인	22	272.1522	250.4466	
	임시·일용직 임금소득	도시노인	430	100.9555	101.7005	3.346***
		농촌노인	81	62.0092	57.0241	
	사업 및 부업소득	도시노인	1482	28.1814	96.2451	3.477***
		농촌노인	324	50.0462	127.6265	
	고용·자영자 소득	도시노인	198	157.1625	196.2330	0.248
		농촌노인	32	167.3957	311.4218	
	농림축산업	도시노인	141	73.0287	101.4196	0.611
		농촌노인	151	66.3550	84.8952	
	기타근로소득	도시노인	1482	0.2675	2.3253	1.482
		농촌노인	324	0.4683	1.5813	
	재산소득	도시노인	1482	25.4924	67.8861	3.790***
		농촌노인	324	10.8509	32.4282	
	사적이전소득	도시노인	1482	44.1705	65.2049	1.875*
		농촌노인	324	37.1242	38.5453	
	공적이전소득	도시노인	1482	58.4795	91.9768	3.036**
		농촌노인	324	42.4462	51.4046	
	사회보장급여	도시노인	1482	44.1288	94.5020	3.669***
		농촌노인	324	24.2494	51.7464	
	기초보장급여	도시노인	1482	3.2903	11.8499	0.062
		농촌노인	324	3.3351	11.8936	
	기타정부보조금	도시노인	1482	11.0603	12.2207	5.086***
		농촌노인	324	14.8618	51.4046	
	기타소득	도시노인	1482	13.0384	66.6104	0.973
		농촌노인	324	17.2561	86.9499	
부채	총부채액	도시노인	1482	16570.0376	3.63970E5	0.594
		농촌노인	324	4243.9833	1.79606E5	
자산	소유 부동산	도시노인	1482	25718.4236	5.03427E5	0.332
		농촌노인	324	16416.5371	55697.6987	
	점유 부동산	도시노인	1482	583.2692	4082.6955	0.984
		농촌노인	324	350.1780	2646.0453	
	금융자산	도시노인	1482	4211.0631	10254.9610	2.579*
		농촌노인	324	2669.6800	6961.6175	
	기타재산	도시노인	1482	202.5942	898.8870	1.542
		농촌노인	324	121.9917	597.5910	

주: 1) 총소득과 부채 그리고 자산액은 연단위임. 그 외 소득은 월단위.
2) *p<0.05 **p<0.01 ***p<0.001

사회보장급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액에서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간에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자산에서는 금융자산과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재산에서 차이가 있었다. 총소득은 도시노인이 1,877만원, 농촌노인은 1,436만원으로 약 4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총 근로소득에서도 도시노인은 203만원, 농촌노인은 112만원으로 약 90만 원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경제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성별로 살펴보면 임시·일용직 임금소득은 도시노인이 100만원, 농촌노인은 62만원으로 약 40만 원가량 도시노인의 소득이 높았으며, 역으로 사업 및 부업소득에서는 농촌노인이 50만원으로 도시노인 28만원 보다 높았다. 재산소득에서는 도시노인이 25만원인데 반해 농촌노인은 10만원에 불과하여 농촌노인의 경제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농촌노인과 도시노인 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노인은 이전소득과 사회보장급여에서, 농촌노인은 기타정부보조금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농촌노인 가운데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적이전소득은 농촌노인이 37만원인 반면 도시노인은 44만원으로 농촌노인의 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도시노인은 58만원인데 반해 농촌노인은 42만원에 불과하였다. 사회보장급여액 역시 소득차이가 컸는데, 도시노인은 44만원에 달하는 반면, 농촌노인은 평균 24만원에 불과하여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정부보조금에서는 농촌노인이 14만원, 도시노인이 11만원이었다.

부채액에서는 도시노인이 16,570만원, 농촌노인은 평균 4,243만원이었으며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산에서는 금융자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도시노인은 4,211만원, 농촌노인은 2,670만원으로 도시노인이 약 160만 원가량 높다. 집단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소유 부동산과 점유 부동산 모두 도시노인의 자산이 농촌노인의 자산보다 약 2배 가량 많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소득보장과 자산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기제 없는 농촌노인 자산은 많지 않은 반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할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근로를 통한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나며, 특히 농촌노인은 적절한 제도적 노후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적 지원체계도 미비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의 근로소득에 의

〈표 9〉 농촌 및 도시노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2010년 기준		χ^2	2011년 기준		χ^2
	농촌노인	도시노인		농촌노인	도시노인	
매우 가난	36(11.9)	169(12.5)	2.317	36(11.7)	173(12.7)	2.293
가난	120(39.7)	497(36.8)		122(40.2)	510(37.4)	
보통	141(46.5)	638(47.2)		140(46.2)	634(46.5)	
부유	6(1.9)	45(3.3)		6(1.8)	45(3.3)	
매우 부유	0(0.0)	1(0.1)		0(0.0)	1(0.1)	
전체	324(100.0)	1482(100.0)		324(100.0)	1362(100.0)	

주: *p<0.05 **p<0.01 ***p<0.001

존하면서도 도시노인에 비해 근로소득과 총소득, 자산에서 낮은 수준이다.

〈표 9〉는 도시와 농촌노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것이다. 먼저 2010년 기준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농촌노인이 51.6%, 도시노인이 49.3%로 농촌노인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는 농촌노인의 경우 1.9%, 도시노인은 3.4%로 도시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농촌노인의 경우 51.9%, 도시노인은 50.1%로 농촌노인이 다소 많았으며, 부유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는 농촌노인이 1.8%, 도시노인이 3.4%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노인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3. 소득원천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각 집단 내 소득불평등은 농촌노인은 0.3354, 도시노인은 0.3361로 도시노인의 소득불평등이 다소 높다. 그리고 지역별 노인 집단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 분해를 실시한 결과, 농촌노인의 총소득에서 사업 및 부업소득이 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28%)이 높았다. 도시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적 이전소득이 17%로 높아 이전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사적·공적 이전소득이 약 22%에 불과한 데 반해 도시노인의 경우 소득원의 약 42%가량이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적 지원과 공적 지원의 혜택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소득원천별 총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경우 사업 및 부업소득이 가장 크고(0.44) 도

〈표 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결과

구분	소득원천	비중	지니계수	지니 상관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상대적 불평등도
농촌노인	근로소득	0.2807	0.5105	0.4737	0.0539	0.2024	0.7211
	사업 및 부업소득	0.3117	0.8523	0.6836	0.1816	0.4414	1.7369
	재산소득	0.0654	0.8787	0.5827	0.0215	0.2778	1.5275
	사적이전소득	0.1637	0.5497	0.2565	0.0213	0.0964	0.4204
	공적이전소득	0.0617	0.6137	0.7498	0.0284	0.0847	1.3728
	기타소득	0.1168	0.9163	0.4802	0.0514	0.1531	1.3108
	총소득		0.3354		0.3354	1	
도시노인	근로소득	0.0871	0.5277	0.8134	0.0374	0.2112	2.4248
	사업 및 부업소득	0.0940	0.8217	0.4974	0.0384	0.1504	1.6
	재산소득	0.1084	0.9787	0.6527	0.1192	0.2832	2.6125
	사적이전소득	0.1750	0.5725	0.1255	0.0126	0.0532	0.304
	공적이전소득	0.2456	0.5836	0.4244	0.0608	0.2309	0.9401
	기타소득	0.0724	0.9052	0.3647	0.0679	0.0711	0.9820
	총소득		0.3361		0.3361	1	

주: 1) 비중(S_k): 소득원천 k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지니계수(G_k):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3) 지니 상관계수(R_k): 총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천 k의 순위와 총소득 순위간의 상관계수
4) 절대적 기여도(C_k):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C_k = R_k + G_k + S_k$)
5) 상대적 기여도(P_k): 소득원천 k의 총소득지니계수(G)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P = C_k / G$)
6) 상대적 불평등도(H_k): 소득원천 k의 불평등도를 총소득의 불평등도와 비교($H_k = P_k / S_k$)

시노인의 경우는 재산소득(0.28)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비중의 증가에 의해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에 상대적 불평등도를 통해 각 소득원천이 총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농촌노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 기타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은 생애소득에 있어 중요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노년기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및 부업소득, 기타소득 또한 농촌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1보다 작아서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정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과 일치하지만, 역으로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보고한 지은정

(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한편, 도시노인의 경우 재산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 및 부업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모두 1보다 작아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농촌노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노인의 경우도 사적·공적이전소득은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지역별 차이와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노년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역으로 이전소득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

1) 차원에 따른 사회적 배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배제의 하위 차원 지표별 표준화 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퍼지 집합 이론에 따른 사회적 배제 가중치를 구하였다. 표준화된 점수의 평균점수는 주거차원의 구조·환경, 고용차원의 직무환경, 건강차원의 병원이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환경과 병원이용, 가족생활,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차원에 가중치 W_k가 커진다. 동일 차원 내 다른 지표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해당 차원

〈표 11〉 차원에 따른 사회적 배제 가중치 및 배제 점수

연도	차원	지표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가중치			각 하위 차원별 배제 점수
							W_{ka}	W_{kb}	W_k	
2012	경제	소득	0	1	0.5975	0.3287	0.5501	1.9608	0.2805	0.1677
		순자산	0	1	0.5788	0.3444	0.5950	1.9608	0.3034	0.1756
	주거	주택기준	0	1	0.2333	0.1510	0.6472	5.6180	0.1152	0.0027
		주거만족도	0	1	0.3344	0.1658	0.4958	5.6180	0.0883	0.0295
	고용	고용형태	0	1	0.5161	0.5005	0.9698	5.5249	0.1755	0.0906
		직무환경	0	1	0.0418	0.2006	4.7990	5.5249	0.8686	0.0363
	건강	건강상태	0	1	0.4710	0.4999	1.0614	1.1277	0.9412	0.4433
		병원이용	0	1	0.1095	0.0971	0.8868	1.1277	0.7864	0.0075
	사회참여	인터넷사용	0	1	0.9574	0.2022	0.2112	4.8780	0.0433	0.0415
		자원봉사/기부	0	1	0.9718	0.1659	0.1707	3.5336	0.0483	0.0469
		친분관계	0	1	0.3305	0.1543	0.4669	8.0645	0.0579	0.0191
	가족관계	가족생활	0	1	0.0858	0.1634	1.9044	1.0267	1.8549	0.1592
		배우자관계	0	1	0.0597	0.1385	2.3199	2.1053	1.1019	0.0657
		자녀관계	0	1	0.0639	0.1525	2.3865	1.2563	1.8996	0.1213

에 속하는 지표들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시·농촌 노인의 사회적 배제 현황

가중치와 하위 차원별 배제점수를 통해 계산된 농촌·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 점수는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영역을 제외한 경제,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경우 사회적 배제 하위차원의 배제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차원은 경제적 차원으로 0.4932점이다. 반면, 도시노인의 경우 경제적 배제 점수는 0.3808점으로 농촌노인 보다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를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의 빈곤율이 도시노인보다 높으며,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김득희·황경열, 1998; 최현수·류연규, 2003; 김영주, 2008:44)과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영역

〈표 12〉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 현황

(단위: 점)

		2012년		집단 간 차이(t)
		농촌노인	도시노인	
경제배제	평균값	0.4932	0.3808	−5.606***
	평균의 표준오차	0.0095	0.0048	
	표준편차	0.1710	0.1837	
주거배제	평균값	0.1324	0.1311	−0.855
	평균의 표준오차	0.0214	0.0006	
	표준편차	0.0251	0.0225	
고용배제	평균값	0.1237	0.1542	3.148***
	평균의 표준오차	0.0102	0.0039	
	표준편차	0.1803	0.1484	
건강배제	평균값	0.4208	0.3884	−2.143**
	평균의 표준오차	0.0264	0.0123	
	표준편차	0.4753	0.4750	
사회참여 배제	평균값	0.4075	0.3540	−2.451**
	평균의 표준오차	0.0009	0.0006	
	표준편차	0.0164	0.0231	
가족관계 배제	평균값	0.4663	0.4249	1.825*
	평균의 표준오차	0.0343	0.0189	
	표준편차	0.5969	0.6995	
전체배제	평균값	0.3573	0.3056	2.768***
	평균의 표준오차	0.0038	0.0042	
	표준편차	0.1596	0.1623	

주: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배제 점수가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으로 0.4463점 이었으며, 건강영역의 배제점수가 0.4208점으로 배제 점수가 높았다. 한편, 도시노인의 경우 평균값이 가장 높은 차원은 가족관계 영역으로 0.4249점이었다. 다음으로 건강영역의 배제점수가 0.3884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제영역의 배제점수가 0.380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촌노인은 사회적 배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도시

〈표 13〉 도시-농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배제

(단위: 점)

구 분		농촌노인		도시노인	
		평균값	t/F	평균값	t/F
성별	남성	0.2058	5.220**	0.2037	14.998***
	여성	0.2734		0.2464	
연령	65~69	0.1965	3.285*	0.1896	11.551***
	70~74	0.2169		0.2228	
	75~79	0.2363		0.2455	
	80세 이상	0.2644		0.2502	
교육수준	초등이하	0.3828	4.120***	0.3396	13.361***
	중학교	0.2105		0.2124	
	고등학교	0.1540		0.1899	
	전문대학/대학교	0.1280		0.1552	
	대학원 이상	0.0473		0.0922	
혼인상태	유배우	0.2101	1.902	0.2041	13.530***
	사별	0.2561		0.2390	
	이혼	0.2219		0.3520	
	별거	0.4194		0.4525	
	기타	0.1346		0.2845	
가구구분	일반가구	0.1974	32.606***	0.1658	212.359***
	저소득 가구	0.4605		0.4208	
고용형태	상용직	0.824	3.200**	0.1082	8.358***
	임시·일용직	0.3129		0.2387	
	자활/공공/노인일자리	0.1906		0.1746	
	고용·자영업	0.1581		0.1887	
	무급가족종사	0.1980		0.1816	
	미취업	0.2636		0.2365	
가구원 수	1명	0.3929	2.866*	0.2882	9.277***
	2명	0.3155		0.2094	
	3명	0.2995		0.2170	
	4명	0.1667		0.1870	
	5명 이상	0,1636		0.1592	

주: *p<0.05 **p<0.01 ***p<0.001

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영역과 건강영역,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도시노인과의 배제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낮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라 생활수준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노인과 비교하여 농촌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은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서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제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 초등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인의 경우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에서 배제 정도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배제 점수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 보다 약 2배가량 높아 연령이 높고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 노인의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농촌노인이 0.4605, 도시노인이 0.4208점으로 높은데 반해 일반가구의 사회적 배제 점수는 농촌노인은 0.1974, 도시노인은 0.1658점으로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점수가 높다. 한편, 고용형태에서는 상용직이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가장 낮은 배제 점수를 보였고, 역으로 임시·일용직인 경우 배제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의 경우 농촌과 도시 모두 단독가구인 경우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사적지지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쉽고,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

다음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에 따른 사회적 배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가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고 혼인상태가 사별·별거·이혼일수록,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

가 높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배미애, 2007; 배화옥·김유경, 2009; 김교성·노혜진, 2008; 박정희, 2010). 다음으로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 저소득여부와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농촌노인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사회적 배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변수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 노인들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구원의 수는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소득 여부는 농촌노인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

〈표 14〉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

		농촌노인		도시노인	
독립변수	범주(더미변수)	b	(S.E)	b	(S.E)
성별(기준=남성)	여성	1.083**	0.818	0.203*	0.079
연령	연속변수	0.014	0.010	0.031***	0.006
교육수준 (기준=초등이하)	중학교	−0.032	0.089	−0.034	0.003
	고등학교	−0.003	0.005	−0.003	0.004
	전문대/대학교	−0.014	0.025	−0.012**	0.006
	대학원 이상	−0.002	0.032	−0.015*	0.001
혼인상태(기준=유배우)	사별/별거/이혼	0.243**	0.012	0.038	0.023
	기타/미혼	0.032	0.020	−0.102	0.012
가구원 수	연속변수	0.139	0.064	0.062**	0.029
가구구분(기준=일반)	저소득	0.021*	0.149	0.143*	0.079
취업여부(기준=취업)	미취업	0.070	0.085	0.204*	0.142
절편		−2.430**		−1.732***	
사례 수		324		1483	
모형 유의도		R^2=0.192 F=2.030* df=317		R^2= 0.238 F=8.169*** df=1475	

주: *p<0.05 **p<0.01 ***p<0.001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로 성별이 여성일수록,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할수록, 저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로 성별이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저소득일수록, 미취업일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 등 경제적 상황과 연관된 특성들도 개인이 사회적 배제에 처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가짐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 일컫는 여성, 저학력, 무배우자, 미취업자 등에게서 사회적 배제 현상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t검정을 통한 집단의 평균비교에서 결과적으로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과 자산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노년기라는 동일한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생활수준에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부문에서 총 근로소득과 임시·일용직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사회보장급여액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산부문에서는 금융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성에 있어서 도시노인은 농촌노인에 비해 총소득과 총 근로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과 사회보장급여액이 월등히 높은 반면, 농촌노인은 기타 정부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다수의 농어촌 주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고용과 소득불안정 현상이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지위는 사회보험혜택의 기회를 규정하고 노후의 소득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농·어업을 주된 직업으로 삼아온 농촌노인들은 노동기간에 경험했던 소득불평등 현상이 사회보험혜택기회의 차별로 이어져 노년기에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업 및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이며 도시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노

인의 이전소득은 약 42%를 차지하여 이전소득이 이들의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촌노인의 경우 이전소득이 약 22%에 불과하여 이들이 사회보험액과 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자원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노인의 사업 및 부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1보다 커 총소득보다도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도시노인의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1보다 커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노인의 소득불평등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1보다 작아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었다. 도시노인의 소득불평등에서 과거 삶의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이전소득의 영향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이 소득분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지원망이 약한 농촌노인의 경우 공적연금과 기초생활수급에서의 배제는 이들의 노년기 삶을 더욱 빈곤하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경제와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농촌노인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였으며, 도시노인은 가족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지 않으며, 생활수준이 열악함을 말해준다. 주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도시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경제영역과 건강영역, 사회참여 영역에서 도시노인과의 배제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낮으며 건강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로 성별이 여성일수록,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할수록, 저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주된 요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였으며 여성과 고령자, 저학력자, 단독가구, 저소득자, 미취업자일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에 진입할 경우 경제적 영역 이외에 교육과 건강,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영역에서의 배제가 또 다른 영역에서의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공적 지원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촌노인은 사회보험체계보다 기타의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측면에서는 공적 지원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 건설직 일용근로자, 임시·일용직, 농·어업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자산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가입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농촌노인의 경우 비 노년기에 사회보험 가입기회를 놓치고 이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소득기준에 대한 농촌과 도시지역의 차별화 등 제도적 보완이나 농업노동으로 인한 연관 질병을 산재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산재보험상의 산재범위 특례 신설로 농업노동자가 많은 농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즉, 농업종사자는 재산의 환산제도적용시 농지를 토지로 보고 재산으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농지를 통해 얻은 농업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다시 토지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통해 재산소득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사회보험과 연금제도의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노인이 겪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인구고령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농촌노인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없는 농업에 종사하여 별도의 소득보전기제가 없는 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을 한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가사와 농업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건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다. 이에 농촌노인을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기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및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거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노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복지의 핵심 사항인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개선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기관과 물

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등 거점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촌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무배우자일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성별 영향을 완화하고 여성고령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과 생애 주된 노동경력이 노년기에도 이어진다는 점,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에 비해 가구의 조건 및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은 도시에서 가족해체로 발생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손가구와 더불어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수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높아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농촌 독거노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조손가구 및 독거노인들의 경우 실제 직계혈족(아들, 딸 등) 또는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산정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산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조손가구 및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및 별도의 소득지원기제가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지역별로 나누어 노년기 삶의 불평등을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정책 및 제도설계에서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에 포함된 대상자들만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사회적 배제 측정 지표를 산정함에 있어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지표가 제외된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적절한 분석 자료의 구축 이후, 후속연구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현정·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pp.323-334.

강혜규 외(2013).『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김경아(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32. 79-107.

김교성·노혜진(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호. 133-162.

김교성·김연명·최영·김성욱·김송이·황미경(2010).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신사회위험의 등장과 사회투자전략의 모색.”『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권. 31-54.

김동진·김태완·김유경·박세경·정진욱·이윤경·황주희·마상진·채희란·오혜인·윤흰뫼(2013).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득희·황경열(1998). “농촌과 도시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연구.”『특수교육연구』. 21. 95-126.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회이론』. 227-330.

김영주(2008).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빈곤율과 빈곤감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0(4), 31-53.

김종숙(1999). “한국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연구.”『경기대학교 논문집』. 13. 135-153.

김혜연·홍백의(2009). “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 40(1). 87-114.

노시학·이재천(2013). “농촌지역 노령인구의 통행패턴 분석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을 중심으로-”.『국토지리학회지』. 47(4). 397-413.

농림부(2002).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연구.” 농림부.

모선희(1995).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농촌생활과학』. 16(4). 31-34.

박경숙(2001a). “농촌과 도시 재가 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비교: 경기도 재가 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17(1), 175-211.

_____(2001b).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한국사회학』 35(6). 141-168.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박대식(2013).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마상진(2007).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의 농촌사회 양극화 분석.”『농촌경제』. 30(3). 1-26.

박승희(2000). “농촌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욕구생성의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한국사회학』. 34(4). 1007-1036.

박정희(2010). “사회적 배제가 건강 위해 행위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박현주·정순둘(2012). “노년기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한국노년학』 32(4), pp.1063-1086.
배미애(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24권 1호. 151-191.
배지연·노병일·곽현근·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33), pp.7-28.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20), 197-216.
배화옥·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9권 2호. 55-76.
백혜성(2008).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재은(2010).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 제도의 영향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73-98.
서병수(2007). “한국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실현능력접근.”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병돈(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1461.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17). pp.49-72.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성호(2005a),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1권 제1호. pp.149-176.
윤영석·이병훈·박준기(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pp.33-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1991). 『빈곤론』 나남출판.
이소정·정경희·손병돈·이미숙·홍백의·이은진(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2012).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4(4). 163-188.
이형실(1999).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33-49.
이재은(2012).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6), pp.315-336.
이혜원(1995).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0. 7-59.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은정(2011).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333-370.

최영준(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권 3호. pp.307-337.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통계청.

팜플(Fred. C. Pample)(2000).『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김정석·김영순 역. 나눔의 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2013년 하반기 농업경제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7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lkire. S. (2002). "Valuing Freedom: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tkinson, A., Cantillon, B., Marlier, E. & B Nolan. (2002).『*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tti, B. and V. Verma. (1999). "Measuring the degree of poverty in a dynamic and comparative context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using fuzzy set theory." Proceedings ICCS-VI 11. 289-301.

Buchardt, T, Le Grand, J. & D. Piachau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Buchardt, T. Le Grand, J. & D. Piachaud. (2001). "Degree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Hills, J., Le Grand, J. & D. Piachau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lsanti, T. M. (1996). "Incorporating Diversity: Meaning, Levels of Research, and Inplications for Theory". *The Gerontologist* 36. 147-156.

Crysral, Stephen, & Dennis Shea.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4) 437-443.

Dannefer, D. (1991). "The race is to the swift: images of collective aging". In G. M. Kenyon, J.E. Birren, & J.J. Schoots(Eds.). *Metaphors of aging in science and humanities*. New York: Springer, 155-172.

Delon, P.H. & Mary W. Amy J. Schultz. Jane W. & Gary R. VandenBos. (1989). "Rural America." *American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Elder, G. H. & O'Rand. M. (1995). "Adult Lives in a Changing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edited by K. Cook, J. House, & G. Fine. New York Allyn and Bacon. 452-475.

Hann, A. (1998). "Social exclusion in policy and research: operationalizing the concept.". 11-23 in Figueiredo, J. and A. Haan (eds.). *Social Exclusion*: An ILO Perspectiv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Henretta, John C. & Richard. T. Campbell. (1976). "Status Attainment and Status Maintenance: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Old 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6). 981-992.

Howard, C., Kenway, P., Palmer, G. & C. Street. (1998).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bour's Inheritance". *New York Publishing Services*.

Kohli, M. (1988). "Aging as a challenge for sociological theory". *Aging ans Society* 8. 367-394.

Lerman, Robert I. & Sholomo Yitzhaki. (1994).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equality". *Public Finance Quarterly. 22(4)*.

Leisering, L. & Leibfried. (1999).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tas, R. and Pantais, C. and Fahmy, E. and Gordon, D, Lloyd, E and Patsios, E.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Unit.

Miliband, D. (2006). "Social exclusion: The next steps forward". London: ODPM.

OECD. (2010). "A Framework to Measure the Progress of Societies", Th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Series.

O'Rand. A. (1996). "The Cumulative Stratification of the Life Course."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Robert Binstock and Linda Geroge.(Eds.). New York: Academic Press. 188-207.

O'Rand, A. (2006). "Stratification and life course: life course capital, life course risks and social inequality".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Eds.). *Hand 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145-162.

Paugam, S. (1996). "Poverty and Social disqualifi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umulative social disadvantage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4. 287-303.

Pierson, J.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Pressman, Steven and Summerfield, Gale. (2000). "The Economoc Contributions of Amartya Se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2(1). 89-113.

Quzilbash, M. (2006). 『Philosophical accounts of vagueness, fuzzy poverty measures and multidimensionality』. 29-48 in Lemmi, A. and Betti, G. (eds.). Fuzzy Set Approach to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New York: Springer.

Reimer, B. (2004). "Social exclusion in a comparative context", *Sociogia Ruralis, 44(1)*. pp. 76-94.

Robinson, P. & Oppenheim,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IPPR mimeo.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pp.1-9 in Room, G. (eds.). *Beyond the Threshold*. The Policy Press.

SEU. (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Final report.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

Scharf, T., Phillipson, C., Kingston, P, & Smith, A.E. (2001). "Social exclusion and aging". *Education and Ageing 16(3)*.

303-320.
Schucksmith, M. (2001). "History meets biography: Process of change and social exclusion in rural areas. Unpublished paper to Exclusion Zones: Inadequate Resources and Civic Rights in Rural Areas Conference, Queen's University. Belfast.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Harmondsworth.
UNDP, (2008).『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2010).『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World Bank, (2007).『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Abstract>

Social Exclusion and Income Inequality of the Rural Elderly

Choi, Min-jeong* · Kwon, Jeo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ocial exclusion and income inequality of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using the seven wave data of the 2012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considered the elderly in rural and urban areas separate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five points. First, there were striking differences in economic welfare levels between the rural and urban groups. The urban elderly population had larger total incomes, earnings, and private-public pension incomes than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which had fewer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Second, gross self-employment income were somewhat increased for the rural elderly when considering income inequality. Thir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showed that sideline businesses, properties, and public pension incomes contributed more to income inequality than did gross income. However, the earnings and private pension incomes of the rural elderly we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gross income. Fourth, social exclusion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rom urban areas. Fifth, it was found that gender, marital status, and low-income typ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one's social exclus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poverty levels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individual career characteristics and area of residence.

Key Words : the rural elderly, income inequality, social exclusion,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14.03.20, 심사종료일: 14.04.04, 게재확정일: 14.04.11】